

광주 고교 '장학금 복불복'

年 6600만원서 700만원까지... 학교 전통·재단 능력 따라 '희비' 개교 50주년 석산고, 전교생에 20만원씩... 1억2320만원 달해

광주 석산고등학교 장학재단이 최근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일선 학교의 장학금 규모가 회자되고 있다.

장학금 규모가 학교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어느 학교에 다니냐에 따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달라 부러움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9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석산고가 개교 50주년을 맞은 지난달 전교생 616명에게 일명 '코로나19 장학금'으로 20만원 짜리 광주상생카드를 각각 지급했다. 총 1억2320만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다른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광주 지역에는 석산고 못지않게 장학

금 규모가 큰 학교도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역 사립 A고교도 매년 성적 우수 학생 60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 또 독서 우수 학생 6명에게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한다. 1년에 총 6600만원에 달한다.

사립학교인 B고교도 매년 2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B고교는 학교와 '인연'이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일정 액수'를 지원받아 별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립 C고교는 학교법인 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 규모가 70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매년 성적 우수 학생 2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 가량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51개교)가 학교 전통과 장학재단 능력에 따라 학생들의 혜택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장학금 복불복' (福不福) 사람이 운수에 따른다는 의미)이 되는 것이다.

학부모 김모 씨는 "학생들의 능력이 아니라 어느 학교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장학금 혜택이 달라지는 것도 교육 당국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라며 "장학금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에 대해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외부 장학회와 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생 선발 의뢰가 들어오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추천 학생 명단을 해당 장학회와 장학재단에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직접 장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구조이고, 학교마다 장학금 규모가 다른 현실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멸종위기 하늘다람쥐 '무등산 품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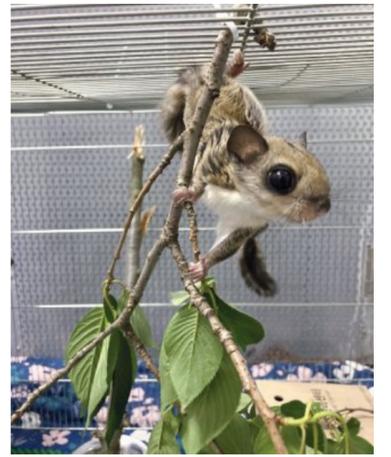
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4마리 돌봄 후 자연 복귀 도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 4월 어미를 잃고 미아상태로 시민들에게 발견돼 구조한 '하늘다람쥐' (천연기념물 제328호,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4마리의 돌봄을 마치고, 8일 건강하게 무등산 품으로 돌려보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남구 봉선동에서 발견된 어린 하늘다람쥐 3마리와 북구 두암동 상가에서 발견된 1마리를 구조해 함께 약 4주간에 걸쳐 분유 등 매일 5회 이상 인공 포유 급여했고, 자가 섭취가 가능해지자 나머지 한 달여간 생태환경과 유사한 입원장을 특별 제공해 나뭇가지 사이로 건강하게 활공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하늘다람쥐는 봄철인 4월에 3-6마리의 새끼를 낳으며 성질은 온순해 친숙해지기 쉽고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날개 역할을 하는 비막(飛膜)이 있어 쉽게 7-8m 이상의 공중을 나는 다람쥐와도 활공 가능 여부가 자연복귀를 결정짓는 요인이었다.

/최규일 기자 cki@kwangju.co.kr



자연복귀 전 재활장의 하늘다람쥐.

5·18 집단 트라우마 학술 심포지엄 15일 개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집단 트라우마를 조사하고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오는 15일 오후 1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열린다.

5·18 기념재단과 경상국립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적 치유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인권의 관점에서 본 5·18 집단트라우마의 사회적 치유: 국가범죄의 피해자학을 향하여'를 주제로 삼았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집단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사회학적 표본조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9일 "여러 유형의 5·18 피해자의 실제 사례와 구술생애사 채록을 기초로 연구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발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무등산 동적골에 사계절 꽃피는 정원 조성

광주 동구는 올림픽 동적골 생태문화공원에 사계절 화조정원을 조성한다.

무등산국립공원 길목인 동적골을 정비해 계절마다 다양한 화조를 심을 예정이다. 우선 여름에 꽃을

피우는 산수국, 원예 수국을 심어 수국 동산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동구는 기대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배상해야"

지난 2019년 유벤티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중민)는 9일 서모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2분의 1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티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 8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날두 노쇼'로 비롯돼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원고가 적게는 수십, 많게는 5000여 명에 이르는 민사 소송이 다수 제기됐고, 먼저 1심 판결이 난 사건들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됐다.

/연합뉴스

택배업 멈추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가 10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택배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우편집중국 안에서 택배노동자들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 예산 삭감 규탄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전교조 전남지부

공무원노조 전남교육청지부와 전교조 전남지부가 학교 급식노동자 신규 채용 예산 삭감을 규탄했다.

노조는 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전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2021년 1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비정

규직 급식노동자 총원예산만 삭감됐다"며 "지난해 연말에도 관련 예산을 반액 삭감하던 이번 추경에서는 전액 삭감 결정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현재 학교 급식실에서 노동하고 있는 조

리실무사 1명당 150여명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공공기관의 조리실무사는 1명당 50~70명 정도"라며 "공공기관 조리실무사에 비해 학교 조리실무사는 2~3배 높은 노동 강도를 감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전남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인원 기준을 150명에서 유·초등학교 140명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당 1명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대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

혜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점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

내용 MG체크카드 이용자

신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